



Samil PwC PE Newsletter

Contents

2025.1

1. Deal Insights	2p
2. Industry Insights	5p
3. Tax & Accounting Issues	6p
4. Consulting Service 사례	10p
5. Deal Pipeline	12p

1. Deal Insights

2025년 M&A 시장 반등 전망

2024년은 고금리, 국제 정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M&A 시장의 침체기가 계속 이어져 온 한 해였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시장 내 유동성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포트폴리오 기업 회수 시점 도래, 누적된 드라이파우더로 인해 오래된 침체기를 벗어나 전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회요인을 바라봐야

새해 초부터 강력한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의 재당선으로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하에서도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준비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납기 속도를 내세워 Market Share 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에 밀려 어려움을 겪어 왔던 조선업에서도 미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예상되면서 특수선 분야와 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도 생물보안법 시행 시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신정부의 전력망 현대화 정책, AI 투자 관련 규제 완화로 '21년부터 지속되어 온 미국 전력인프라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멕시코 등 경쟁국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내 전력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해 K-뷰티는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22%의 점유율로 16.5%를 기록한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고, K-푸드의 수출 성장률도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Momentum 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PE, 대기업, 중견기업 관련하여 최근 관측되는 M&A의 trend는 다음과 같습니다.

PE: 올해 M&A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외관상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보유한 1 조 원 이상의 다수 매물이 매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모펀드의 주요 매물로는 국내 3 위 산업용 가스업체 DIG 에어가스, 반도체 전공정 기업 HPSP, 의료미용업체 클래시스,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프리드라이프, 모던하우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의 포트폴리오 매각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SK 스페셜티, CJ 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매물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이파우더 소진이 필요한 사모펀드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조정 매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치적 변수 등으로 인한 국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사되는 투자들이 글로벌 사모펀드 및 대형 국내 사모펀드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업: 지난해부터 유동성 악화가 불거진 롯데그룹의 비핵심자산 유동화(사업 리밸런싱)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1 월 9 일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고강도 쇄신을 주문한 만큼 체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자산 매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롯데렌탈 지분 56.2%를 1 조 6 천억원에 매각한데 이어 최근 F&B 사업 부문(롯데웰푸드 제빵사업부문)도 최근 매각 주간사(KB 증권)를 선정하고 주요 원매자들에게 관련 티저를 배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제빵 부문 생산 시설인 수원, 부산, 증평공장이며 매각 희망가는 대략 1 천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의 알짜 산업으로 꼽히는 롯데칠성의 F&B 사업 및 주류 사업까지 영향을 끼칠지 M&A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벤처투자 플랫폼 더브이씨의 분석에 따르면 신사업 진출을 주저하는 기업이 늘면서 스타트업 M&A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2024년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시장은 2022년에 비해 10 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 M&A는 2022년 81 건(2 조 2894 억원)에서 2023년 39 건(4501 억 원)으로 급감했고, 2024년에는 32 건(2231 억 원)으로 더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지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예년에 비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CVC 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분 투자에 나서는 것은 향후 사업 시너지 효과 등을 염두했기 때문인데, 현재는 장기 투자가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는 위기감이 그만큼 팽배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대·중견기업이 새해에도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직접 투자보다는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PwC News & Articles

"성장속도 더딘 석화·면세점업계... 합작법인으로 새 활로를" [M&A 리더에게 듣는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1141817539944>

삼일 PwC, IR·PR 자문서비스 제공 'PwC 비즈니스서비스' 출범

<https://www.fnnews.com/news/202501021342209901>

다시 불붙은 환경 폐기물 M&A 시장 전망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501157229r>

전기차 도입: 가속화되는가, 아니면 둔화되는가?

<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focus/ev-adoption.html>

K-엔터 나스닥行 물꼬...K-뷰티·푸드·바이오도 미국행 채비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MKJSA9H>

반도체 산업 재무·세무 및 회계 Guidebook

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focus/samilpwc_semiconductor-finance-tax-accounting-guidebook.pdf

삼일 PwC "성장 기대감 높아진 한국 CEO...글로벌 58%, 올해 경제 낙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21_0003039901

삼일 PwC, '회계·재무 자문' 자본시장 입지 독보적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9584>

삼일 PwC "올해 IPO 시장 활기...미국이 회복세 주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5366642039688&mediaCodeNo=257&OutLnkChk=Y>

삼일 PwC, 위축된 기후기술 투자...2019년보다 투자 줄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2086639123768&mediaCodeNo=257&OutLnkChk=Y>

상호금융권 NPL 공개매각, 작년 급성장... 좋은 투자 대안 될 것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5/01/23/UXN4IWXVZI55CC32ZAIAAK3DVE/>
행동주의·사모펀드 두려운 상장자들...정지원 삼일 PwC 센터장[인터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25_0003046240

2. Industry Insights

2025년 산업전망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과 함께하는 2025년 한국의 산업 기상도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995년 WTO 설립 이후 30년이 지난 2025년은 세계화의 물결에서 성장했던 한국 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및 기술 경쟁력, 가성비를 갖춘 산업만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삼일PwC 경영연구원에서는 국내 산업의 현황 및 트럼프 2.0 시대의 첫 해인 2025년 산업별 전망을 통해 한국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삼일PwC's Industry Telescope

구분	업황(2025)	트럼프 정책 영향*	#Key word
인공지능(AI)	Bright	Bright	#Dive in
방위/우주산업	Positive	Bright	#방위비 증액
조선	Positive	Positive	#LNG선
제약/바이오	Positive	Positive	#CDMO
원자력	Positive	Positive	#SMR
반도체	Positive	Neutral	#AI반도체
자동차	Neutral	Negative	#관세
석유화학	Negative	Positive	#유가 하락, #중국 공급 과잉
철강	Negative	Neutral	#쿼터제 지속
2차전지	Negative	Neutral	#IRA 축소
K-Culture	Bright	Bright	#뷰티, #푸드, #콘텐츠

* 트럼프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만을 반영한 의견임

Source: 삼일PwC 경영연구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일 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om/kr/ko/insights/samil-insight/samilpwc_industry-outlook2025.pdf

3. Tax & Accounting Issues

Tax: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수정 내용

지난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포함한 총 13개의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024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공포되었다.

정부가 지난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이중 포트폴리오 회사 및 주식 거래의 상대방인 개인주주들에게 의미가 있을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환원촉진세제 삭제

정부안에서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국회 의결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됨

➤ 상증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삭제

정부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해 기존에 적용하던 20%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하여 개인주주의 주식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국회 의결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됨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p>①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p> <p>*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개인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p> <p>②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p> <p>-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p> <p>*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 원(총 1억 원), 비과세한도: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p>

	<p>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p> <p>*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 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p> <p>④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p> <p>*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 시 세액공제 우대</p> <p>⑤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유지</p> <p>* (현행)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협용</p>
상속세 및 증여세법	<p>※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사항 없음</p> <p>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 현행 유지</p> <p>* (현행) (최고세율) 과세표준 30 억 원 초과 50%, (최저 과표구간) 1 억 원</p> <p>②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현행 유지</p> <p>* (현행) 자녀 1 인당 5 천만 원</p> <p>③ 뱌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현행 유지</p> <p>④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유지</p>

Accounting: PE(FI)와 SI의 연결주체 판단

PE(FI)의 타겟 인수에 있어 SI 와의 ‘연결주체’ 결정 문제는 끊이지 않는 이슈다. 수많은 딜에서 SI들은 FI 와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조율함과 동시에 딜 이후 본인에 대한 회계적 영향을 고민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업적 목적과 회계보고적 목적이 상충하는 경우 또한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50% 미만의 지분율 또는 이익배분율을 보유하면서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회사에 편입 또는 유지하고 싶은 경우).

금번 PE News letter 에서는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SI 가 PE(FI)에게 기준 종속회사인 타겟의 구주 매각 또는 신규 타겟에 대한 공동 투자하여 그 결과 타겟에 대한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가져갈 경우 연결 여부에 대해 자주 검토되는 사항을 살펴보자 (아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에 기반한 해석임)

(1) 이사회 구성 및 의결 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할 경우 SI의 연결이 힘듦)

- 이사회 구성이 SI:FI 등 수 이거나
- SI가 많더라도 의결 방법이 FI 이사 1인 이상의 출석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SI 3명, FI 2명이고, 이사회 의결이 이사 2/3 이상 출석 및 출석이사의 과반 동의로 결정)
- 반대로 이사회 구성원이 정관 또는 주주간 약정에 의해 SI가 과반을 선임하고 의사 결정 또한 과반 결의일 경우 SI의 연결 가능성성이 높음. 아래 별도의 만장일치 사항이 정관 또는 주주간 약정에 있을 경우는 추가 판단 필요

(2) 만장일치 사항 (아래 사항을 포함할 경우 SI의 연결이 힘듦)

- 사업계획 또는 예산의 승인
- 자금 조달, 이익 배당
- 중요 판매/공급계약의 승인
- 신사업 결정 및 사업철수
- 주요 임직원 임명 및 해임
- 주요 자산 처분 등
- 아래 별도의 교착해소절차 사항이 정관 또는 주주간 약정에 있을 경우는 추가 판단 필요

(3) 교착(Deadlock) 해소 절차 (아래 사항을 포함할 경우 SI의 연결 가능성 높음)

- 만장일치 사항에 대한 교착 시 SI가 Call option 행사 가능
- 동 행사는 Deadlock 판단 시점부터 근시일 (예: 한달 이내) 행사 가능하고, 행사 가격은 내가격 또는 공정가치로 정할 경우 SI의 연결가능성 높음
- 반면 Call option 을 양 쪽이 다 갖거나, SI만 Call option을 갖되 그 행사 가격이 (FI 취득가 * FI 요구수익률) 등으로 '외가격'화된 경우엔 연결가능성 낮아질 수 있음

(4) 타겟과 SI간 영업상 관계(의존도) (De Facto Control issue)

- 타겟과 SI간 장기공급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어 타겟의 SI에 대한 영업상 관계가 매우 깊음 (IFRS 10 B19 (2)(다) '피투자자는 중대한 용역, 기술, 공급품, 원재료를 투자자에게 의존함')
- 이러한 경우 SI가 소극적 지분 (49%)를 초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암시가 될 수 있으며, 동 기준서 B18은 아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
 - (1) 투자자는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2) 투자자는 계약상의 권리가 없어도 자신의 효익을 위하여 유의적인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에 지시할 수 있다.
 - (3)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임 절차를 지배할 수 있거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위임장 획득을 장악할 수 있다.
 - (4)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의 특수 관계자이다(예: 피투자자의 대표이사와 투자자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다).
 - (5)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자자의 특수 관계자이다.

위와 같이 SI 와 FI 가 함께 투자한 건에 대한 연결주체의 판단 문제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상기의 사례 또한 대표적인 몇 가지 지침일 뿐 실무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회사법과 각종 계약 및 상업적 실질에 대한 매우 면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M&A 구조화(Structuring)에 특화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Reimagine the Possible' 도 바라보는 딜 구조를 짜는 것이 딜의 성사와 향후 재무보고 및 세무 안정성을 위해 늘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Consulting Service 소개

Business Model Reinvention (BMR): 비즈니스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1) BMR 정의

- BMR (Business Model Reinvention)이란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근본적인 혁신을 주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 BMR 혁신은 전통적인 서비스 관행에서 벗어나 자원, 역량, 프로세스, 고객 경험, 수익 모델을 재구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접근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합니다



2) BMR의 중요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의 생존 전략

- 2024년 초 발표된 PwC의 제27차 '글로벌 CEO 서베이'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귀사가 현재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45%의 CEO가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내 CEO들의 경우, 무려 75%가 이러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기존의 운영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BMR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3) BMR 사례: 사업모델 혁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 BMR은 기술 발전 및 경제성장에 따라 기존 산업이 쇠퇴해 사업모델의 혁신이 필요한 기업에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며, PwC는 다양한 BMR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 글로벌 PwC 수행사례: "Trimble"(H/W 중심 기업) & "RightShip" (선박 선급 기업)

- Trimble: 토지 등 측정, 계측 관련 H/W 중심 기업 → 유관 테크 서비스 및 S/W 영역 확대 추진으로 판매 속도 약 40% 개선 및 경쟁사 대비 주가 대폭 상승
- RightShip: 선박 선급(선박 안전검사) 기업으로 과거 전문인력 중심 사업에서 고객 불만 발생으로 시장 퇴출 위기 직면 → 고객 Concern 분석 기반 “Human + Digital” 서비스 개념 정립 및 클라우드 기반 선급 서비스 플랫폼 개발로 매년 Double-digit 매출 상승
- 국내 PwC 수행사례: “제일기획” (마케팅·광고대행 기업)
 - 광고산업 진화에 따라, Data/Tech 사업모델 혁신을 통한 “기업가치 2 배 확대” 목표
 - Data 및 Technology 역량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데이터, 테크 및 크리에이티브 기반 역량과 오퍼링을 Connec+하여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브랜드 경험 제공
 -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E2E 서비스 니즈 충족: 광고대행 영역을 넘어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Marketing operation 실행까지 BPO 하여 고객사의 퍼포먼스에 실질적 기여

4) PwC 의 ‘BMR 추진 Approach’

- 2024년 금융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가치 제고(Value-Up)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다방면의 정비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활성화를 추진 중입니다.
- PwC 컨설팅은 신규 사업 모델 혁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BMR을 결합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1. 전략 수립: 타겟 고객, 고객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파악, 필요한 변화를 정의
 2. 구조 설계: MVP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를 제작하여 모델을 검증
 3. 솔루션 검증: MVP를 시장에서 실제로 테스트하여 고객 피드백을 통해 개선
 4. 지속 방안 모색: 솔루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최적화
- 기업은 BMR을 통해 매출 증가, ROE 개선 등 기업 가치 제고를 달성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성장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Strategy& Leader



김 창 래

chang-rae.kim@pwc.com

Deal Strategy Practice Leader



장 유 신

yoo-shin.chang@pwc.com

5. Deal Pipeline

Pipeline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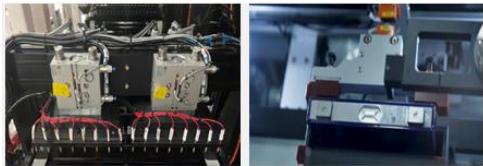
거래규모	거래구조	Industrial	Infra	Consumer	TMT*	Bio	Capital / VC	합계
1,000 억 이상	Buy out	1 건	1 건	2 건	1 건	-	1 건	6 건
	투자유치	1 건	-	-	-	-	-	1 건
	소계	2 건	1 건	2 건	1 건	-	1 건	7 건
500 억 ~ 1,000 억	Buy out	3 건	4 건	1 건	3 건	-	-	11 건
	투자유치	1 건	-	-	1 건	1 건	-	3 건
	기업회생	1 건	1 건	-	-	1 건	-	3 건
	소계	5 건	5 건	1 건	4 건	2 건	-	17 건
500 억 미만	Buy out	28 건	24 건	22 건	19 건	1 건	1 건	95 건
	투자유치	7 건	4 건	10 건	6 건	7 건	-	34 건
	기업회생	12 건	5 건	2 건	-	1 건	-	20 건
	소계	47 건	33 건	34 건	25 건	9 건	1 건	149 건
미정	Buy out	-	-	1 건	-	-	-	1 건
	기업회생	-	2 건	-	-	-	-	2 건
	소계	-	2 건	1 건	-	-	-	3 건
합계		54 건	41 건	38 건	30 건	11 건	2 건	176 건

*TMT: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하기 매물에 관심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장병국 파트너(byeong-guk.chang@pwc.com, 02-3781-9994) 또는 김진 파트너(jin_4.kim@pwc.com, 02-709-0943)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Project Speed

2차전지



Project Overview

- 업종 • 2차전지 제조장비(활성화 공정)
- Deal 구조 • 투자유치(구주거래 가능)
- Deal Size • 협의가능

Target Overview

- 2009년 설립되었으며, 2차전지 생산공정 중 활성화 공정에 투입되는 장비(Taping, 검사기 등) 생산·판매
- FY21-24E 매출 CAGR 23.6%로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FY24E 680억원, FY25E 700억원 예상

Investment Highlights

- 국내유일 완전 자동화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생산·판매중이며, 국내외 유수 2차전지 업체 대부분은 Target 제품을 사용중에 있음
- 30개 이상의 특허 기반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해 고객 요구사항에 맞춘 BESPOKE 제품 생산 역량 보유
- 국내 대표 배터리셀 3사인 삼성SDI에 활성화 공정 장비 독점 납품 중
- 국내 2차전지 시장 부진(Chasm) 속에서도 유지한 견조한 실적 및 향후 국내외 높은 수요가 예측되는 '각형전지' 특화 제품 전문 기업

Project Monopoly

Infra



Project Overview

- 업종 • Amusement Park 기획·설계·운영
- Deal 구조 • 투자유치 (200~300억)
- Deal Size • 100% Equity 기준 2,000억

Target Overview

- 무중력 레이싱 테마파크 기획, 설계,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제주에서 테마파크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모델 구축하여 확장 중
- 연결 기준, '23년 매출 144억, 제주 부동산 보유로 순자산 약 600억

Investment Highlights

- 제주파크를 통해 입증된 컨텐츠 경쟁력 (제주파크는 BEP 달성하였으며, 제주법인 기준 '24년 매출 160억, EBITDA 40억으로 제주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Amusement Park)
- '24년 인천공항 인근에 인천파크 착공하였으며 컨텐츠 경쟁력과 입지우위가 결합되어 인지도 상승 기대
- Game, K-Pop 등 Contents와 결합시 높은 시너지 기대
- '26년 인천파크 Opening에 맞춰 IPO 예정

Project Watch

Industrial



Project Overview

- 업종 • 공공기관향 CCTV제조
- Deal 구조 • 구주 매각(100%)
- Deal Size • 100% Equity 기준 260억원

Target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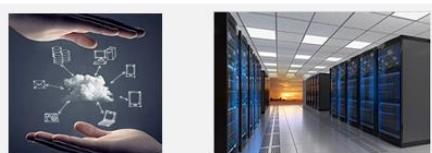
- 대기업 H사로부터 공공기관향 CCTV제품 공급받아 조달청 우수 및 일반등록기업으로 납품하는 사업 영위
- 매출 FY20 100억원에서 FY24 4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 FY24년 기준 매출 400억원 EBITDA 40억원

Investment Highlights

- 대기업 H사와의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총판지위를 통해 품질우수한 해당제품을 독점공급받고 있음
- 매출 및 영업이익 빠르게 증가하여 매우 안정적인 재무실적 및 현금흐름창출 시현
- 조달청 우수 및 일반등록기업을 매출처로 보유하며 인증컨설팅을 제공하여 거래처수 지속 증가
- 보안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분위기에 따라 CCTV설치 필요성 및 관련시장 지속증대 예상

Project Success

IT



Project Overview

- 업종 • 시스템 통합/구축, 클라우드 등
- Deal 구조 • 구주 매각(100%)
- Deal Size • 100% Equity 기준 120억원

Target Overview

- 시스템 통합/구축,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및 구축 등 소프트웨어개발/운영업체
- FY24 매출액 337억원, 영업이익 10억원 예상, 견고한 성장세 유지
- 순자산 70억(현금 30억, 부동산 30억) 건전한 재무구조

Investment Highlights

- 공공기관에서부터 일반기업까지 검증된 SI 구축 및 유지보수 역량 보유
- B2G/B2B 등 다양한 고객사 대상으로 제공한 업무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확보한 최적의 IT솔루션 노하우 보유
- FY19 - FY24 매출 149억 → 337억으로 CAGR 17.7% 성장, 3%대의 안정적인 EBITDA margin% 유지
-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영남, 호남 및 나주 사무소를 운영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 전국 단위 고객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

Project C

Industrial



Project Overview

업종	• 알루미늄 커튼월 제조
Deal 구조	• 구주 매각(100%)
Deal Size	• 100% Equity 기준 280억원

Target Overview

- 알루미늄 창호 제조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영업 및 대기업/OEM 납품을 병행하며 급격한 성장
- 매출 FY23 390억원, EBITD 43억원 수준, 최근 4개년 매출 연평균 62%증가

Investment Highlights

- 우수한 역량 및 대형 고객을 기반으로 급성장 중인 알루미늄 커튼월 제조 전문 기업
- 고객사 확장 및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 및 높은 마진을 시현
- 추가 공장 증설 및 해외 시장 확장 등을 통한 Upside-Potential 보유
- 전방산업(오피스 건설)의 회복세, 오피스의 고층화, 알루미늄으로 소재변경추세 등으로 수요 증가 예상

Project B

Industrial



Project Overview

업종	• 전력버스바 제조
Deal 구조	• 구주 매각(100%)
Deal Size	• 100% Equity 기준 80억원

Target Overview

- 배전반, 변압기등 전력관련 팩토리 건설 및 유지보수시 사용되는 전력버스바 제조
- 매출액 FY20 100억원에서 지속성장하여 FY23 310억원까지 연평균 42.8%성장

Investment Highlights

- 전방기업인 대기업 L사와의 오랜업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주증가 추세
- 자체도금 Line보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도금 허가난이도는 매우 높음)
- 23년 설비투자로 생산 Capa증대(현재 50%수준 가동률로 업사이드 존재)
- 도금Line기반으로 인수자에 따라 자동차부스바등 신규분야 진입가능

Project D

Industrial



Project Overview

업종	• 철강중개물류(물류창고보유)
Deal 구조	• 구주 매각(100%)
Deal Size	• 100% Equity 기준 50억원

Target Overview

- 전라남도 위치하며 철강제조 대기업 P사의 운송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매출액은 70~90억원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10억원대의 EBITDA마진을 시현중

Investment Highlights

- 철강제조 대기업 P사의 운송권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마진 시현
- 1만평 규모의 물류창고를 2018년에 건축하여 보유 중
- P사와의 운송계약은 18개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운송권의 가치높음(진입장벽 高)
- 거래처 다변화 및 창고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추가 수익창출 가능성 보유
- 산업 내 물류운송사업 확장니즈 증대(최근사례다수)

Project P

TMT



Project Overview

업종	• 키오스크 제조
Deal 구조	• 구주 매각(100%)
Deal Size	• 100% Equity 기준 120억원

Target Overview

- 우수한 제품설계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Top-tier 키오스크 기업
- 최근 3개년 평균매출 95억원수준, 최근 3개년 평균 EBITDA 15억원수준

Investment Highlights

- 우수한 제품설계 능력 및 자체 브랜드 보유로 안정적 성장중인 국내 Top-tier 키오스크 제조사
- 축적된 노하우 및 숙련된 인력을 기반으로 지속적 R&D 수행 및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자체 공장(1,000평 규모) 가동 극대화 및 거래처 다변화를 통한 성장가능성 보유
- 디지털 취약 계층 등 키오스크 사용이 비교적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제품 런칭으로 업사이드 보유

Project Honor

Infra



Project Overview

- | | |
|-----------|----------------------------|
| 업종 | • 공항버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운행업 |
| Deal 구조 | • 구주 매각 100% |
| Deal Size | • 100% Equity 기준 500억대 중후반 |

Target Overview

- 대전/충남/세종을 연고로 하는 고속/시외버스 회사로서 인천공항행 버스 노선들을 운영중
- Covid-19 이후 노선이 상당부분 정상화 되어 공항버스 33대 포함 총 103대의 버스 운행중, 지속 증자 계획
- 23년 매출 328억/EBITDA 61억, 24년 EBITDA 70억 예상

Investment Highlights

- 신규사업자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진입장벽 존재. 공항 이동의 경우 대전충남 지역 특성상 비용/편익/소요시간 고려 시 다른 대체교통 수단(KTX 등)의 활용도가 낮음
- 단순한 사업모델로 이익 및 현금흐름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정적인 사업구조, 타사 대비 사업 안정성 高
- Covid19로 인한 운행노선 재개, 인천공항 증설, 우등버스 전환에 따른 ASP 상승 등 매출 성장요소
- 대상회사 공항노선은 시외버스로 분류되어 영구면허 (서울공항버스와 같은 주기적 면허 갱신 없음)

화장품 브랜드사

Consumer



Project Overview

- | | |
|-----------|--------------------|
| 업종 | • 화장품 브랜드업체(기초화장품) |
| Deal 구조 | • 구주 매각 |
| Deal Size | • 200억원(최종 라운드 기준) |

Target Overview

- 회사는 2011년 설립된 화장품 브랜드회사이며, 생산은 코스맥스, 롤마 등 국내 제조업체가 수행
- 기초와 색조 중 기초에 속하는 브랜드이며, 동물실험을 지양하는 등 클린뷰티를 지향
- 국내와 해외의 매출비중은 약 6:4이며, 국내는 자사몰, 쿠팡, 올리브영 등에서 판매되고, 해외는 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발생

Investment Highlights

- 클린뷰티를 통한 고객충성도가 높은 브랜드
-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 중 고객만족도가 높은 브랜드
-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확장을 통한 성장가능성

Project Giant

TMT



Project Overview

- | | |
|-----------|----------------------|
| 업종 | • 보험상품판매 / 컨설팅 |
| Deal 구조 | • 200억원(구주매각 / 신주발행) |
| Deal Size | • 협의가능 |

Target Overview

- 215명의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보험판매 전문회사(GA)
- 국내 대기업, 공기업, 군인공제회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
- GA 중 전문자격증 보유비율 업계 1위

Investment Highlights

- 삼성, 한국전력, 군인공제회 등 대기업(B2B), 공기업 (B2G)에게 재무설계용역 제공 중
- 현재 보험업계는 대형화 전문화 추세이며, Target 사 투자유치를 통해 보험설계사 확대를 통한 대형화
-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여 보험설계사 인원 증원 시, 즉각적인 매출신장이 기대
- GA 설립 혹은 M&A Needs가 높아지고 있어 대형화 이후 Exit 가능성 높아지고 있음

Project Stone

Infra



Project Overview

- | | |
|-----------|-------------------|
| 업종 | • 광산개발 및 광물소재 제조업 |
| Deal 구조 | • 250억원(부분투자 가능) |
| Deal Size | • 협의가능 |

Target Overview

- 국내 유일의 형석광산 생산지 및 광업권 확보기업
- 광산측량사무소 측정결과 1차 형석 매장량 약 38만톤 이상으로 추정
- 형석은 100% 수입하고 있으나, 2차전지 /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국내기업들의 원료확보가 필요한 상황

Investment Highlights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상 핵심광물인 형석은 수요증가로 지속적으로 가격상승 중이나 국내 생산이 없어 해외에서 100% 수입 중
- 2차전지 및 반도체 특수ガ스를 생산하는 수요처에 샘플 테스트 의뢰 및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고순도 97% 이상)
- 본 투자유치를 통해 파쇄장 구축 예정이며, 이후 고부가 가치를 지닌 형석 파우더 생산을 위한 부유선별장 구축, 추가 간구 증설 등 수행 예정

Project Lucky

Industrial



Project Overview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Deal 구조	• 구주 매각 100%
Deal Size	• 100% Equity 기준 200억 원

Target Overview

- 수도권 다이캐스팅 자동차 부품사
- 다변화된 거래처 및 높은 이익률을 시현하는 2차 Vendor
- '24년 매출 약 180억 및 EBITDA 약 30억 예상 지속적인 성장 중, 순현금 약 50억 및 우량한 재무구조
- 승계부재에 따른 매물

Project E

IT



Project Overview

업종	• 취업 및 채용 AI기업
Deal 구조	• 구주 매각 100% (협의가능)
Deal Size	• 100% Equity 기준 50억 원

Target Overview

- 전국 200개 이상의 대학에 취업콘텐츠 솔루션 AI플랫폼 서비스 제공함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 국내 채용시장에 AI도입 Trend 빠르게 확산 중
- 기업/개인/대학 모든 주체 입장에서의 솔루션 보유하고 있음
- 25년 통합 플랫폼 서비스 제공예정으로 업사이드 존재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mil PwC

조직도 소개



민 준 선

Deals Leader

joon-seon.min@pwc.com

Deals Platform Leader



류 길 주

gil-ju.ryu@pwc.com

PE Service Leader



이 정 훈

junghoon.lee@pwc.com

대기업 Service Leader



곽 윤 구

yun-goo.kwak@pwc.com

Middle Market Service Leader



이 도 신

do-shin.lee@pwc.com

금융 및 부동산 Service Leader



한 정 섭

jeong-seob.han@pwc.com

M&A 센터장



정 경 수

kyungsoo.jung@pwc.com

PE Accounting Partner



김 성 호

sung-ho.kim@pwc.com

PE Tax Partner



김 경 호

gyungho1.kim@pwc.com